

'친윤' 국민의힘 비대위, '당원 100%' 전대를 바꿀까

원의 조직위원장 160명
여론 50%·당원 50%로 변경 요구
지난 전대 주류 당원 100% 관철
개최 시점 '6월 말·7월 초' 예상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전당 대회를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도권 초선인 김용태 비대위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물은 바뀌어야 한다"며 "내가 5(여론조사) 대 5(당원투표) 개정을 말한 바 있는데, 3 대 7 정도라도 민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가 원의 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며 "비대위 내에서 룰 개정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의 조직위원장 160명은 전대 룰을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룰 개정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한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당원이 80만명 수준인데 당원 1천명 뽑고, 일반 국민 1천명 뽑아서 같이 대표를 선출하면 일반 여론조사가 과다 대표 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반영이 합리적인 의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일반 여론을 참고해야 하지만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야 한다"며 "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이 당원인데 이들을 찬밥 신세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대 룰을 두고 당내 목소리가 양분되면서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대위에 친윤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점도 회의론에 다소 무게를 실는다. 직전 전대를 앞두고 당원투표 100% 룰을 관철한 게 주류 측이기 때문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리가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전대 룰과 관련한 의견 수렴 일정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대 룰 개정뿐 아니라 전대 개최 시점을 두고도 비대위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 애초 '6월 말·7월 초' 개최가 예상됐지만, 황 위원장은 전대 룰 개정 여부와 당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고려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부 당권 주류들과 친윤계 의원들이 비대위가 조속한 전대 개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일들을 계산해 역산해 보면 6월까지의 불가능해 보인다"며 "7월경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우여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비대위원, 전주혜 비대위원. /연합뉴스

與, 채상병특검법 대표결 '표 단속'...98명 확보에 사활

의원들 해외출장 수요 조사
국민의힘이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대표결 절차에 대비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 원내 지도부는 오는 23~28일 사이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고, 이달 27~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대표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으로서선 21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 개최되는 본회의에 얼마나 많은 소속 의원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투표가 가능한 국회 재적의원이 모두 대표결에

나선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3명을 비롯한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 반대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부결된다. 문제는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의 표심이다.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이들 중 몇 명이 반대표결에 동조할지 미지수다. 김용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대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국민의힘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법 통과로 야당이 파상공세에 돌입하면 여론 모두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공유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우리와 같이 이탈표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행정체제 개편 논의한다

행안부 '미래위' 출범

민선 차지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이하 미래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뒤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 없는 행정체제가 주민 불만,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 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됐다. 행안부에서는 차관과 차관보,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합뉴스

민주당 40.6%·국민의힘 32.9%·조국혁신당 12.5%

리얼미터,尹 지지율 30.6%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7~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1주 37.3%를 기록한 뒤, 32.6%→32.3%→30.2%→30.3%→30.6%로 횡보 중이다. 부정 평가는 1.1%p 상승한 66.6%로 조사됐다.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2.9%, 더불어민주당 40.6%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0.8%p 상승했고, 민주당은 4.5%p 올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2.5%, 개혁당 4.1%, 새로운미래 2.1%, 진보당 0.5%, 기타정당 2.3% 등이었다. 무당층은 5.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에코에너지운동회

일시 : 2024. 5. 15.(수) 10:00~12:00
장소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야외 광장
모집기간 : 5월 3일(금) 9시 부터 9일(목) 오후 5시까지
모집대상 : 목포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모집인원 : 40명 선착순 모집

* 행사특성상 교학년은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교학년 신청 시 자동 취소됩니다.

문의 061-286-1071

[오프닝] 다같이 에너지 모아 박 터트리기		
알송달송 에너지 OX퀴즈	독도는 우리땅	타워크레인
지구를 살리자	협동달리기	컬링
홀라후프 통과	분리배출 이어걸기	공이동하기
물을 아끼자		